

S#7 실외 / 주택가(길거리) - 오후(밤)

가로등이 켜져 있는 길거리. 늦은 시각이라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두 사람. 발걸음 따라 어깨와 팔이 닿았다 떨어졌다 반복한다.

다빈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바다로 드라이브 갈까?

연우

(다빈을 바라보며) 멀리 가려고?

다빈

(연우를 보고 웃으며) 간단인데 그 정도는 가야 기분이 살지!

아 이왕 가는 거 하루 자고 올까?

연우

주말에는 사람 많아서 숙소 잡기도 힘들텐데...

이제 성수기라 비싸지 않을까?

다빈

좀 비싸면 내가 더 내면 되지.

연우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같이 가는거면 같이 내야지.

다빈

(살짝 연우의 눈치를 보며) 뭐... 일단 내가 가자고 하는거니까...

여름 성과금도 나와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연우

(잠시 생각하다) 그래도 그건 내가 싫어.

술 깨고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어때?

다빈

(소심하게) 나 별로 안취했는데...

다빈을 보며 가볍게 웃고 먼저 앞으로 걷는 연우. 다빈, 가만히 연우의 등을 바라본다.

다빈

(천천히 연우를 향해 걸어가며) 오늘 어땠어?

연우, 상체를 살짝 돌려 다빈을 바라본다. 눈으로 다빈을 따라가는 연우.

연우

그냥 다들 뭐하고 지내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얘기했지.

(한 박자 쉬면서) 근데 각자 사는 얘기에는 별로 공감이 안가더라고.

다빈, 고개를 끄덕이며 연우에게 팔짱을 낀다.

연우, 다빈을 바라보며 픽 웃는다.

다빈

자기 진짜 지루했겠다.

연우

뭐... 그건 아닌데.

그냥... 기분이 별로더라고.

연우, 뒷말을 더 할 것처럼 말하지만 하지 않는다.

다빈

일 때문에 그런거야?

연우

(알게 한숨 쉬며) 조금은?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다빈

(걸음을 멈추며) 걱정마! 내가 자기는 책임질 수 있어!

(자신 있다는 듯이 웃으며) 나 서다빈이야! 이연우 나만 믿어!

연우

(피식 웃으며) 그래그래 우리 다빈이 세상 대단하지.

다빈

아니면 우리 회사 올래?

안 그래도 저번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우리회사 사람 구한다고 올라왔더라고.

자기 관심있으면 내가...

연우

(걸음을 멈춰서고 다빈을 바라보며) 뭐라고 했어?

다빈

(살짝 당황하며) 어? 아니 저번에 봤던 게 생각나서 말해주는 건데...

연우

(미간을 찌푸리며) 이직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구직사이트 볼 일이 왜 있어?

다빈

아니... 나는 그냥 자기가 요즘 들어 더 자주 보는 것 같길래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연우

(정색하며)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잖아.

다빈

(당황한 기색으로) 그래도... 같이 고민하면 더 쉽지 않을까?

나 취업할 때도 자기가 도와줬잖아...

연우

모의 면접 도와주던거랑 일자리 알아봐주는거랑 똑같아?

다빈

그냥... 나는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연우

(숨 한번 들이 마시고) 그니까 자기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다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본다.

연우

이걸 왜 네가 해결해주려고 해?

다빈

(연우를 향해 몸을 완전히 돌리며) 아니... 우리가 하루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이 정도 말을 꺼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연우

(미간을 찌푸리며) 지금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니잖아.

다빈

(연우의 눈을 바라보며) 그럼 뭔데?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거고, 자리잡으면 좋은거잖아.

(이해가 살짝 안 간다는 듯이) 좋은 일만 되는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연우

그렇게 쉽게 해결할거였으면 진작 얘기했겠지.

나 쉬고 있는지 벌써 2년이 넘었어.

근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부탁한 적 있었어? 없잖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빈

(당황하며) 아니 자기 원래 그런 거 말 잘 안 하잖아...

연우

티 내기 싫었으니까 그랬지.

너는 회사 적응한다고 바빴고, 좀 지나니까 일한다고 정신없고.

너는 혼자 할 일도 많은데, 내 짐까지 줄 수는 없잖아.

다빈

그걸 왜 자기가 걱정해? 나는 항상 자기가 일순위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먼저 생각하는데,

그 정도 여유는 챙기면서 일할 수 있어.

연우, 말없이 다빈을 바라본다.

다빈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내가 해줄 수 있다고 하잖아.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왜...?
(술 기운과 감정이 한번에 올라오는지 숨을 뱉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믿어주면 되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 우리 항상 그렇게 잘 지내왔잖아 근데...

연우

(다빈의 말을 끊으며) 그 사이에서 내가 아니라고 했던건 없던 말이야?
나도 싫다고 했잖아. 아닌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 의견은 넘기고 너가 괜찮다고 하는데?

다빈, 말없이 연우의 눈을 바라본다.

연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우는 모습은 아닌채 답답한 느낌으로)
나... 이 이야기 더 말하기 싫어.

연우, 다빈에게 시선을 거두고 먼저 걸어 나선다.

다빈

(연우의 팔을 잡으며) 아니 연우야 내 말은 그제...

연우

(다빈의 손을 가볍게 내리며) 나 재희네 들렀다가 갈게. 먼저 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는 연우. 다빈, 연우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주저 앉아 작게 한숨을 뱉는다. 이내 곧 정신을 차렸는지, 뒤이어 연우를 쫓아간다.

S#8 실내 / 재희의 집 - 오전(아침)

크지 않은 원룸. 정돈된 침대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바로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는 연우가 보인다. 그 모습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출근을 위해 가방에 짐을 넣는 재희. 연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조금씩 뒤척인다. 재희, 연우를 보며 크게 한숨을 쉰다.

재희

(작은 목소리로 툭툭거리며) 애도 아니고 가출을 왜 하는 건데...

연우, 재희의 말을 들었는지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린다. 그런 연우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좌우로 젓는 재희. 현관을 향해 걸어간다.

재희

(신발을 신고 현관 손잡이를 잡으며) 나 출근한다!

3일이면, 투정 부릴만큼 부렸으니까, 정리 제대로 하고 제발 집으로 돌아가.

연우

(잠긴 목소리로) 어...

현관문이 닫히고, 잠깐의 정적. 연우 이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다가 이내 상체를 일으킨다. 머리를 긁적거리고 배게 밑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내 든다. 화면을 켜자, 쌓여있는 부재중 전화와 메세지. 발신자는 전부 다빈이다.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연우.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생각이 너무 짧았었어. 배려가 아니라 이기적인 태도였다는 걸 몰랐나 봐.]

[돌이켜 보면 항상 너가 티 안 내고 넘겼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괜찮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할게.]

...

[내가 잘할게 연우야.]

[연우야 진짜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문자를 확인한 연우, 크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이불 위로 눕는다.

연우

(기운 없는 표정으로) 하아... 괜히 자존심 세워서 이게 뭐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뚱히 천장을 바라보는 연우. 자리에서 벌떡 상체를 일으킨다.

연우

(결심했다는 표정으로) 일단 가자. 이렇게 있으면 해결하지도 못해.

연우, 손목에 끼워둔 머리끈으로 머리를 질끈 묶는다.

S#9 실내 / 집 안 - 오후(점심)

실내복을 입고 살짝 구부정한 자세의 다빈과 지난 다툼 때 입었던 옷과 동일하게 입고 있는 연우. 거실 소파 앞에 다빈과 연우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아있다. 각자 앞쪽에 같은 모양의 물컵이 놓여있다. 두 사람,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정적이 흐른다. 어깨를 움츠린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다빈. 가만히 다빈을 바라보던 연우는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신다. 그 모습을 슬쩍 바라보는 다빈. 연우,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연우

(헛기침을 두 세번 한 후) 집에... 안 들어와서 미안해

다빈

(상체를 확 세우고) 아냐... 내가 실수해서 그런거잖아
내가 더 미안해...

연우

집에 며칠 안 들어올 생각은 아니었어
원래는 다음 날 바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괜히 심술부렸어

다빈

(잠긴 목소리로) 너가 안 돌아오는 줄 알았어...

연우, 미안한 마음에 다빈을 보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여 탁자 위에 올려진 물컵을 바라본다. 다빈, 연우의 얼굴을 보며 할 말이 있는지 머뭇거린다. 다빈의 시선을 느꼈는지 연우, 고개를 돌려 기운 없는 다빈의 어깨를 바라본다. 어깨로 향한 시선에 허리를 천천히 펴는 다빈.

다빈

(손가락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머쓱하게 웃으며)
우리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잖아

연우, 다빈의 말을 가만히 듣는다.

다빈

네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크더라고...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며) 너를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

연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집을 둘러본다. 두 사람의 사진, 같이 쓰던 머리끈과 핀이 놓여있는

TV선반,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와 배달음식점의 쿠폰이 눈에 들어온다. 다 마신 빈 물컵을 괜히 만지는 연우. 두 사람 사이의 잠깐의 정적이 흐른다.

연우

(다빈을 바라보며) 잠은 좀 잤어?
혼자 잘 못 자잖아...

다빈

그냥... 불 켜놓고 잤어
자기는?

연우, 말없이 천천히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다빈, 연우를 보고 미안한듯 어깨에 힘을 뺀다.

다빈

(연우를 바라보다 물컵으로 고개를 숙이며) 내가 많이 미안해
오래 만나서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
(고개를 들어 연우를 보며) 그리고 나 생각보다 너한테 소홀한 것 같기도 했고
너무 내 위주로 생각...

연우

(다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며) 다빈아.
그건... (고개를 저으며) 아닌 것같아

다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우를 바라본다. 당황스러움과 놀란 모습이 섞여 있다.

연우

따지고 보면,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들을 한거잖아
나는 화난다고 집에 며칠이나 안들어왔고...

다빈

(놀란 표정으로) 그래도 그건...

연우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나도 너한테 잘 한게 없는데
왜 너가 다 미안하고 너가 다 사과해...

다빈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으로) 아니 그니까 나는...

연우

네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걸 보고 싶었던 게 아니야.
(속상하다는 투로)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고 다시 시시콜콜하게 웃고 싶었지

다빈

(점점 힘이 빠지는 목소리로) 연우야...

연우

애기를 하면 할수록 너는 자꾸 미안하다고 하잖아...
다 네 잘못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

다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괜한 말을 꺼내서 시작된거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고개를 점점 푹 숙이며) 후회했던 말들을 다 내가 안했으면
애초에 다투지도 않았고, 너가 화날 일도 없던 거잖아...

연우

너가 무슨 마음으로 말한건지는 알아
하지만 매번 네가 다 잘못해서 미안하다는게 되잖아

연우의 말이 이어질수록 입술을 조금씩 깨무는 다빈. 연우, 다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지는 못하고 얼굴 근처에 시선이 왔다 갔다 한다. 자꾸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다빈.

연우

내가 잘못해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널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

다빈, 조금씩 어깨가 떨리며 천천히 주먹을 말아쥔다.

연우

물론, 너도 쉽게 미안하다고 하는 건...

다빈

(연우의 말을 끊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우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무슨 말을 해...

울음이 터진 다빈. 큰소리로 우는 것이 아니라, 애써 참았던 울음이 터진 듯 조용히 꺾꺾거리며 운다. 그 모습에 순간 당황한 연우. 어쩔 줄 몰라하며 다빈을 바라본다.

S#10 실외 / 놀이터 - 오후

사람이 없는 한적한 오후의 놀이터.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다빈은 캔음료를 들고 눈가 옆에 댄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으며, 연우는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우

이제 좀 괜찮아졌어?

연우, 고개를 돌려 다빈을 바라본다. 다빈,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연우

너랑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었어

다빈

(바닥을 발끝으로 툭툭치며)

난... 상황을 잘 해결하고 싶어서 그랬어

두 사람 사이, 잠깐의 정적

다빈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면

일단 상황이 정돈될 줄 알았어

나름의 배려였는데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아...

연우, 캔음료를 짹 쥐고 있는 다빈의 손을 슬쩍 바라본다.

다빈

(미간을 찌푸리며) 스스로가 많이 실망스러워